##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더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(가제, 초안) --yuchung\_by\_soooh

“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외부 활동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. 검색하다 보니까 42서울도 알게 됐고, 제가 원래 좀 혼자서 공부해 보고 뭔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야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, 42서울이 약간 과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저랑 잘 맞는다 생각도 들었고 또 되게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동료 평가 받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약간 서로서로 모르는 거 알려 주고 배우고 이게 너무 저는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42서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”

"실제로 와서 해 보니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. 제가 한 30 분 전에 첫 평가를 받았는데 처음 받는 거라서 솔직히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지 더 집중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. 혹시 부족한 개념 있는지 정리한 거 한번 보고 준비했었는데 평가하러 와 주신 분이 되게 편하게 해 주시면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풀었다, 오히려 제가 뭔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새로운 해결 방법도 알려주시고 다른 그분이 또 평가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자기는 쓴 코드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오히려 좀 배우는 느낌."

“원격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다가 잠깐 막히는 게 있어서 슬랙에 어떤 문제가 막히는데 내일 오프라인으로 도움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이 dm을 주셨어요. 혹시 지금 게더타운 접속 중이면 게더타운 4 층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. 4 층에서 만나 얘기를 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그 공간에 있는 캐릭터끼리 접속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 지나가시던 어떤 분이 신기했는지 공간에 들어왔다가 말 한 마디 하고 나가시고 정확한 말은 기억 안 나는데 좀 웃겼어요. 이런 대화를 캐릭터로 하는 게 뭔가 귀엽고 아기자기하더라고요"

"지금까지 받아온 교육과 비교하자면 42서울은 가이드 라인이 없는 게 제일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너무 불친절한 느낌이 들어서 어색했거든요. (해 보니까) 괜찮은 것 같아요. 대신 꼼꼼히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동료 학습 받는 거. 피평가자와 평가자 다 배우는 입장이니까 다양하게 알려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.”

"다같이 으쌰으쌰 합시다! 피신이 끝난 뒤 저한테는 글쎄요. 고생했다? 아직 너무 이렇게 먼 미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요"